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G D P	428억 달러 (2008년)
인구	20.06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2,135달러 (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 (달러당)	108.33 (2008년)

- 16세기부터 유럽 열강의 침입이 시작되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의 지배를 받았음. 2차 세계대전 후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72년 새 헌법을 채택하고 스리랑카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음.
- 인도 남동부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2/7 수준이며,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약 2,006만 명임.
- 내수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2년 이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왔으나, 2009년에는 내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2008년의 6.0% 성장에 비하여 낮아진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5월, 25년 이상 이어져온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었으나,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 구조가 상존하고 있어 아직 스리랑카의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6.2	7.7	6.8	6.0	3.0
재정수지 / GDP	-7.0	-6.9	-6.9	-6.6	-8.3
소비자물가상승률	11.6	10.0	15.8	22.6	3.3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음.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부문과 건설부문의 호조로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7년에도 민간소비 증대,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빠른 성장 등으로 인해 6.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휴전협정 종료 이후 격화된 정부와 타밀반군의 무력 충돌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제조업과 농업 부문의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낮아진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부진했던 농업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소비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아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스리랑카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Sri Lanka: CBSL)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 2월 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 금리(Repo rate)를 300bp 인 하하여 현재 10.5%를 기록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하향 안정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급격한 상승세로 반 전되었음.
- 2007년 중 고성장 정책의 유지, 정부지출 확대, 국제유가 급등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5.8%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2.6%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정부지출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 스리랑카 루피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식료품 및 상품 수입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 력 요인들이 상존함.

□ 국방부문 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 스리랑카의 재정수지는 국방부문의 지출이 지속 확대되면서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증대가 필요하나,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로 투자여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조세수입 증대, 정부부채 관리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의 지출이 확대되고, 높은 물가상승률 및 정부와 반군 간 교전 격화 등으로 약화된 민간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7%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재정지출이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동시 에 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면서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 비 8%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타밀반군과의 교전으로 인한 국방부문의 지출 확대가 스리랑카 재정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높은 대외의존도

- 스리랑카는 국토와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협소한 내수시장 및 취약한 투자환경

- 스리랑카는 인구 2천만 명 이하의 개도국으로서 인근 경쟁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고려하여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큰 약점임.
- 또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그동안 내전 악화로 스리랑카의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스리랑카를 통한 우회진출 대신 인근 국가인 인도, 방글라데시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내전 종식으로 인한 소요 및 사태에 대한 우려 감소로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열악한 인프라

- 열악한 인프라는 스리랑카 투자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력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비싼 전력요금 및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 소재 기업의 약 75%는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전력공급의 5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의 노동생산성은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임금은 높은 편임. 노동법이 경직되어 종업원 해고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며, 공휴일이 많고, 고급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나. 성장 잠재력

□ 관광산업의 성장성

- 스리랑카는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연중 내내 해변 휴양지로 이용할 수 있고, 섬 중앙부에 고원지대가 자리잡고 있어 고원 휴양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고대 유적지도 많은 편이어서 종합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함.
- 최근 쓰나미 및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정부는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내전이 종식됨에 따라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 2009년 9월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51.8% 증가한 13,072명을 기록하였음.
-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장은 추후 스리랑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은 2016년까지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 스리랑카의 통신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통신산업이 스리랑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6년 7.2%로 증가하였고(2008년 기준 GDP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20%), 휴대폰 보급은 연간 50%대의 성장을 통해 사용인구는 2001년 67만 명에서 2009년 6월 1,1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중에서 이동전화 부문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남아시아 국가중 전화보급률 1위)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고 영어사용 인구가 많으며, 젊은층이 최신 IT 장비 유행에 민감하여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또한 중고 휴대폰 시장이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보급률 증가의 요인임.
-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인도의 거대 통신기업인 Bharti Airtel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여 약 2억 달러를 투자해 스리랑카 5개 지역에 450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임. 이동통신회사간 경쟁 심화로 휴대폰 사용 요금이 더욱 인하되면서, 이는 다시 휴대폰 보급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1998년에는 인도와 2002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의 회원국으로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과 함께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스리랑카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이익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 양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2009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11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123위), 인도네시아(131위), 베트남(145위) 보다도 앞선 순위임.
-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결합된다면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상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예금 유치 허용

- 스리랑카 정부는 2008년 6월 시중 상업은행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외국의 개인, 펀드, 기업들은 스리랑카 현지 통화 혹은 다른 외국통화로 스리랑카 현지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 예금잔액은 1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함. 시중은행들은 스리랑카 국내예금의 20%까지 외국인 예금을 유치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스리랑카 현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자 예금을 활용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743	-1,599	-1,498	-3,876	-1,731
경 상 수 지 / GDP	-3.0	-5.7	-4.6	-9.0	-4.0
상 품 수 지	-1,630	-2,345	-2,527	-4,470	-2,573
수 출	6,347	6,883	7,640	8,137	7,244
수 입	7,977	9,228	10,167	12,607	9,817
외 환 보 유 액	2,581	2,762	3,433	2,487	1,738 ^{주)}
총 외 채 잔 액	13,005	14,207	16,756	19,252	21,696
총외채잔액/GDP	46.2	40.5	37.7	31.8	31.9
D. S. R.	5.7	10.9	8.2	8.2	11.4

주: 2009년 6월말 수치임.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전망

- 스리랑카는 석유와 주요 식료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인프라 투자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해왔음. 수출은 섬유 및 의류, 차(tea), 고무 관련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차는 2007년에 생산량과 수출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수출액도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액이 전년대비 21% 상승한 약 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차를 비롯한 섬유 및 의류제품 등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적인 고유가 현상과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는 2007년 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적자규모가 4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9년에는 주요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세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 및 경제활동 침체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수지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 * 특히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민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EU가 스리랑카 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Plus: GSP Plus)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경우 수출액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적자 규모 축소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상이전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08년 26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증가하였음.
- 2008년에는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안상황 악화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3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해외근로자 송금 지속, IMF 등으로부터의 원조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8년 GDP의 9%에서 2009년 4%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2009년 내전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채 규모 증가

- 2008년 말 스리랑카의 총 외채규모는 192억 달러로 견조한 경제성장을 통해 GDP 대비 총외채 수준이 2004년 53.7%에서 2008년 31.8%로 꾸준히 낮아져 왔음. 한편, 2009년 상반기 내전 막바지에 이른 동시에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스리랑카는 외채규모의 증가로 금년도 D.S.R.이 11%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스리랑카는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단기적으로는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IMF, 26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합의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힘입어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35억 달러에서 2009년 6월말 1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수입대금 결제 및 외채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2009년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약 1.3개월 수준) 스리랑카 정부는 2009년 3월부터 IMF 차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 7월 IMF는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 IMF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내전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 등 인권문제를 이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면서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음.
- 한편, 스리랑카는 2009년 10월 내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채 발행을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하였음(5년 만기, 발행금리 7.4%). 스리랑카 정부가 전후 재건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국채 발행에서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앞으로 스리랑카의 대외신인도 및 유동성 향상이 기대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내년 총선 및 대선 실시 예정

- 통일인민자유연합(United People's Freedom Alliance: UPFA)은 최근 지역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2010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서 여유롭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임.
- 통일인민자유연합의 주요당인 스리랑카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의 마힌다 라자파크세(Mahinda Rajapakse)는 타밀반군을 물리친 영웅으로 인식되면서 2010년 1월에 예정된 대선의 유력한 승리후보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정부와 타밀반군간 내전 종식

- 2008년 1월 타밀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과의 휴전 협정 폐기 이후, 정부가 타밀반군에 대하여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타밀반군이 패배함에 따라, 약 25년 이상 지속된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었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민간인 피해(7만명 이상 사망)에 대해 미국,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이 아직 해소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반군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스리랑카의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소요/사태 우려 감소

- 세력을 다시 결집하고자 하는 타밀반군의 테러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으나, 내전 종식으로 인해 정부의 무차별한 진압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대폭 감소하면서 당분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원조 기관들이 오랜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경제개혁과 복구를 위해 돕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민간구호 단체의 접근을 일부 통제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

- 스리랑카와 인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타밀반군 및 해양경계 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갈등을 겪기도 하였음. 그러나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점차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서방국가의 원조 축소 움직임

- 스리랑카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EU 국가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은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의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 실패

- 2008년 5월 UN 총회에서 실시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스리랑카는 재선에 실패하였음. 이는 타밀반군과 정부군간의 교전 심화에 따른 인권 침해와 정부의 언론 탄압 증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09.12)	D1 (2009. 4)
OECD	6등급 (2009. 4)	6등급 (2008. 4)
S&P	B (2008.12)	B+ (2005.12)
Fitch	B+ (2008. 4)	BB- (2005.12)

* 동국은 Moody's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Euromoney: 100/186 (2008. 9) → 97/186 (2009. 3) → 94/186 (2009. 9)

* I.I.: 103/177 (2008. 9) → 104/177 (2009. 3) → 121/177 (2009. 9)

* I.C.R.G.: 120/140 (2008. 6) → 121/140 (2009. 3) → 102/140 (2009. 9)

- 2008년 4월 OECD 회의에서 정치 불안, 높은 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적자 증가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Fitch는 2008년 4월 높은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재정적자,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악화, 외채부문의 전망 악화, 정부와 타밀반군간의 교전 격화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B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S&P도 2008년 12월 스리랑카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및 과중한 정부 채무(2008년 GDP의 7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재정관리 노력이 부족하고,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2009년 8월 S&P는 IMF의 대기성 차관 도입 합의가 스리랑카 정부의 관련 정책 형성이나 대외 유동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

서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2009년 10월 Fitch도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7년 11월 14일(북한과는 1970년 6월 25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8년), 문화협력협정(1978년), 투자보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스리랑카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스리랑카	2007	2008	2009.1-11	주요품목
수 출	186	627	152	석유제품, 자동차, 편직물 등
수 입	47	59	70	식물성물질, 의류, 섬유제품
합 계	233	686	22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스리랑카와의 교역 규모는 2007년 2억 3천만 달러, 2008년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8년 석유제품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2009년에는 대 스리랑카 수출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면서 11월말 기준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억 2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기업의 대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9월말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334건, 약 1억 7,073만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유상 원조사업의 중점 협력대상국가 중 하나로, 2009년 9월말 기준 총 16건의 사업에 약 1,942억원의 EDCF 자금이 집행되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기금 집행이 많은 나라임.

VI. 종합 의견

- 스리랑카는 2002년 이후 서비스부문의 성장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2008년 정부와 타밀반군의 교전 격화, 물가 급등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등으로 다소 둔화된 6.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내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낮아진 3.0%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방부문 지출 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국내 경제기반이 협소하여 해외 원조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2009년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 및 의류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근로자 송금 지속, IMF 등으로부터의 원조 등으로 2009년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의 4% 수준으로 전년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 2009년 5월 약 25년 이상 이어져온 정부와 타밀반군의 내전이 종식되어 대규모의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였으나, 싱할리족과 타밀족의 갈등 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반군의 테러공격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스리랑카의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2009년 2월말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약 1.3개월 수준으로 떨어져 수입대금 결제 및 외채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2009년 7월 IMF가 스리랑카 경제 재건을 위해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0월에는 내전 이후 첫 국채 발행을 통해 5억 달러를 조달하는 등 유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